

도서관 관련 행사 소개 ①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16차 워크숍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가 '디지털환경과 대학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제16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재환 교수는 "디지털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 : 혼돈과 갈등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재환 교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정보 환경 속의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있어 우리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떠한 경영철학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은 '디지털'로 표현하기 힘든 너무도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논의하기엔 너무도 복잡해진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자들의 대학도서관에 관한 정의에 의하면 "대학과정, 즉, 연구, 교육-학습, 사회 봉사과정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학의 지원 시설"로 "교수의 연구활동과 교육활동 그리고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속기관, 학술활동, 학술정보자료라는 세 개념은 대학의 학술정보시스템인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도서관은 독립기관이 아니고 대학의 부속기관이므로 모 기관인 대학의 정체성이 변하면 도서관의 정체성도 변하게된다면서 지적하면서, 대학의 환경변화가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되는 까닭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와 디지털 혁명이라는 두 요소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와 디지털 혁명이 대

학도서관의 모기관인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대상인 대학구성원의 학술활동,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수단인 학술정보자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대학도서관의 존립목적은 대학구성원의 '정보화'가 아닌 '지식화'에 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학구성원의 지식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 전통적인 대학도서관의 경영철학도 지금까지의 '관리'의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의 개념이 대학도서관에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장에게 '경영'에 필요한 인사권과 재정권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경영전략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의 '자료 중심적 경영전략'을 '고객 중심적 경영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도서관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고객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객 중심적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고정 고객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쟁보다는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확산이 시대적 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도서관간의 자료개발전략은 '소유는 특성화하고 접근은 '보편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초엽에, '혁명의 주체'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대학도서관과 사서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본 세미나에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태

우 교수는 “디지털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 장서 개발”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장서관리가 이용자 중심의 내용관리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도서관 논문, 웹사이트 등의 가공 자체에 중점을 두는 관리방식에서 가공물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용관리는 기존의 장서관리에서 발전된 개념으로서 새로운 관리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다루는 지식 활동의 생산물인 정보자원에 대해서 소장이나 접근으로서 가공물 관리가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내용관리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관리의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관리 요소를 설정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내용관리를 이용자의 정보이용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이해하고, 이용자 정보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자원중의 ‘이용될 내용’을 중심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내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접근, 2) 접근 개념의 확장, 3) 이용자 정보만족 실현, 4) 하이퍼링크 기반의 웹정보 해석기능 강화, 5)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설명하였고, 내용관리의 특성으로는 1) 매체중심에서 내용중심으로의 사고전환, 2) 이용자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이해, 3) 이용자 만족을 위한 중재기능, 4) 웹자원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5) 빈번한 이용자일수록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남 교수는 내용관리의 기능에 대해서는 1) 이용자 관점의 요구분석, 2) 중재역할, 3) 정보자원의 개별화, 4) 지식관리 모델로서의

역할이라고 언급하면서 내용전문가의 역할은 사서의 지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무수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특별한 학문을 위한 적합한 형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기존의 역할과는 크게 다른 내용관리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중심의 내용관리 요소에 대해서는 1) 현재 장서관리가 이용자의 정보이용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으며, 내용관리의 특성인 이용자의 정보이용 만족을 실현하게 하는 이용자 프로파일, 이용자 계층구분, 이용자의 정보이용목적, 이용 히스토리, 관심분야 등록, 이용자 요구 분석 등의 이용자요소, 2) 이용자의 정보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와 정보내용간의 의도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내용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내용관리의 핵심인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대화기능, 이용자의 인식수준, 사서의 중재역할, 언어적 표현요소, 핵심정보개발 등의 중재요소, 3)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자원의 내용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업무중심의 관리방식으로 도서관의 고객인 이용자의 고객만족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정보만족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검색요소, 매체요소, 시간요소, 비용요소, 제공형태요소, 피드백요소 등의 서비스요소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관리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관리 시스템의 구현은 향후 과제로 남기면서 본격적인 내용관리시스템(CMS)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도서관 관련 행사 소개 ② ;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움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에서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모범사례 시상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두 가지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학교도서관 관계법령 제·개정 의 필요성'에 대해 공주대학교 변우열 교수가 강의하였으며, 두 번째는 '앞으로 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의 방향'에 대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 한옥자 추진위원장이 발표하였다.

변우열 교수는 학교도서관의 성격규정,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정책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변 교수는 학교도서관의 성격규정에 대해 학교도서관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공감해야한다면서,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학공식, 화학분자식 하나를 더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면한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면서 정보능력의 유무에 의해서 개인의 우열이 결정되며,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없이는 올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간을 육성하여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학교도서관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설치, 시설, 자료, 인적자원, 전담부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은 70.5%로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29.5%나 된다고 언급하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 34조에 학교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교육관련

법규에서 학교도서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에 나와 있기는 하나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시설에 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당 열람좌석수가 30석 정도여서 한 학급이 도서관에서 학습활동을 전개하거나 이용할 수도 없음을 지적하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은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자료 측면을 보면,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폐지되었음을 말하면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최근에는 양적 기준을 지양하고 질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학교당 평균 장서수는 3분의 1정도 수준이며, 학생 1인당 장서수는 6분의 1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학교도서관에 배치해야할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공해야하는데, 전국적으로 9,955개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를 일시에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학교도서관 인적자원 배치 10개년 계획>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여 점진

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전담부서 측면에 대해서는 도서관 행정부터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장치를 마련해 두어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도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으므로 그 조직에 대한 관계기관의 어린 관심과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 관심과 강력한 의지는 그 제도나 법령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야겠고, 현장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중앙이나 시·도의 행정부서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한옥자 추진위원장은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의 의의와 성과를 시민 운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비정부조직들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없는 지배형태로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사회적 쟁점이나 과제들에 대하여 그 해결점을 조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비정부조직의 활성화는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며, 이는 곧 시민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환경보호, 개발계획지원, 풀뿌리조직의 발전, 인권보호, 여성문제, 공적보조, 불평등구조 개선, 난민구호, 공정부역 등 국민의 삶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영역 뿐 아

니라 간접적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과 같이 사적, 공적 영역이 혼재된 쟁점들도 비정부조직의 주요 활동 대상 영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비정부조직은 형태상으로는 자발적인 사적 시민단체이지만, 추구하는 목적이나 활동 영역상 공공성을 지니는 비영리·비당파적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500여개의 시민단체가 등록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면서 정채된 교육 영역이 변화의 대상화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이에 힘입어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는 2000년 1월 경기지역에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그해 12월에 전국적 조직의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해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999년 12월 경기도 지역에서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을 벌이던 수원여성회, 군포경실련, 안산상록수문화사랑회 등 단체들이 모여 향후 함께 경기지역에서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면서 구성된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 교수, 사서, 도의원, 장학사, 도문화정책과장 등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 방향 설정, 좋은학교도서관사업 실시 학교 및 사서선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서교육과 사서보수교육,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 위원장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책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재구성이라는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따라 이민을 떠나는 아픈 현실은 이제 끝내야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적극적 활용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관련 행사 소개 ③ ; 부경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세미나 개최

부경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에서는 사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1주제발표는 이창열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유통'에 대한 발표였다. 이 교수는 도서관 지식활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지식전수와 학습실습을 통한 기술 전수, 지식자원관리를 위한 수서-컨소시엄, 통합검색, 최신표현기술 수용 등을 통한 MARC21, ONIX, DC,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한 수업자료, 강의노트, 잡지기사 등을 추가하는 것과 디지털 대출구조의 이용 등을 말하였다.

또한 전자책(E-Book)에 대해 표준이 없고, 확장성이 없음을 문제점으로 들었고, 이 외에도 메타데이터에 대한 약간의 설명도 덧붙였다.

제2주제발표는 동아대학교 중앙도서관 하영환 정리과장이 "대학도서관 조직구조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변화요인 및 사례와 현행구조 분석, 조직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말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변화요인은 외부적 요인으로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3) 대학환경의 변화, 내부적 요인으로는 1) 대학도서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의 변화 2) 도서관규모의 변화를 들었다. 특히 도서관규모의 변화양상은 직원의 증가, 자료의 증가 및 다양화, 예산의 증가, 건물의 신축 또는 분관 설치 등 규모가 계속 증가하며,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개편을 촉진시킨다고 말하였다. 전체 직원수와 전문직과 비전문직 및 정규직과 임시직 비율 등은 조직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직원

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조직의 형태가 크게 변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자료종류의 다양화와 증감도 조직변화의 요인이 되는데, 인쇄매체 만으로 국한해도 매년 총자료량의 5%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공간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종류도 전자매체, 마이크로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다양하여 인력의 증가나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하며, 이 또한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의 증감의 경우도 조직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도서관은 예산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노동집약형 조직이므로 예산감소는 즉 조직통폐합이나 직원감축 등의 방법으로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도 학문영역 구분방식의 변경이나 운영정책의 조정도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 지배의 역사, 동일한 유교적 가치관 등으로 과거에는 일본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오히려 서구 모델을 따르는 경향이 짙다고 비판하였다.

전남대는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많은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기획, 조정, 홍보,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를 신설하고, One-person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사서 개인별로 특정주제의 자료선정, 정리, 열람을 전담하는 제도로 개편하였다고 말하고, 기타 많은 대학들도 조직구조를 변경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큰 흐름은 수서과 정리과의 통합, 주제별, 이용자별 조직의 강화, 명칭변경 등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립대학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해 일

률적으로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3과 체제로 전형적인 업무별 계층조직 형태였으나, 지금은 대학별로 다양한 개편 움직임이 있으며, 그 중 부산대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 도서관과 유사한 조직형태를 지녔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조직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1) 사서직 부관장제의 설치, 2) 학술정보원의 설치, 3) 팀제 도입, 4) 명칭 변경과 조직의 통합 등의 특징을 지닌다고 말하였다.

‘도서관’과 ‘전산소’는 외형상 비슷한 것 같지만 이질적인 성향이 많아 인사교류가 곤란하고 각기 고유한 전문영역이 있어 화학적 통합이 어려운 조직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런 경우 관리자의 리더쉽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리자 성향에 따라서는 매우 불안정한 체제가 되기 쉽다고 강조하였다.

조직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 2) 대학의 지식인 양성 및 지식D/B개발을 위한 법인, 대학, 병원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지식D/B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서관장을 부총장급으로 격상하여 위원장 겸 대학의 CKO(=Chief of knowledge Officer)로 임명한다는 것, 3) 의학도서관분관은 의료원에서 조직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이관해야 하며, 의학자료과장이 의무기록실 업무를 겸무하는 방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4) 조직형태는 중앙도서관에 ‘자료개발과’와 ‘자료봉사과’를, 의학도서관에서 ‘의학자료과’를 설치하여 2개 도서관 3과 체제로 개편한다. 형태상 ‘자료개발과’는 기존의 수서과와 정리과 업무를, ‘자료봉사과’는 열람1과와 2과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 각각 2개의 계를 둔다는 것, 5) 이용자, 사서, 부서별 연계망 구축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료개발과’와 ‘자료봉사과’ 사서 1명이 한 팀이 되는 ‘주제담당사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킹교수의 “학습조직은 지식경영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며, 경쟁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세계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는 말과 “학습조직의 목표는 지식을 활용해 더 나은 지식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 말 등을 통해 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학습조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 제안들이 도서관의 경쟁력 확보에 미미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자신을 의견을 표명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도서관 관련 행사 소개 ④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여름세미나 개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미래의 도서관과 사서' 라는 주제로 여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헌자료실 조윤희 사서의 "디지털도서관에서의 XML 표준기술 적용"이었다. XML에 대한 소개와 MARC의 역사를 설명하고, MARC의 문제점에 대해 포맷의 경직성, 레코드 구조의 복잡성, 데이터의 중복 수록, 도서관 위주의 목록기반, 멀티레벨 레코드 지원과 연결정보의 미비, 데이터의 호환성 결여, 상세한 기술 규칙의 결여 등을 들면서 XML과 MARC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MARC 데이터의 인터넷 환경 이식에 적합한 표준기술, 융통성 있는 플랫폼 환경 제공, 포괄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기술 등이어서 결과적으로 XML을 이용한다면 서지정보와 웹자원 메타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고, MARC 포맷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기종의 분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과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시스템과 벤더에 무관한 데이터 형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통합의 기반, 유지보수의 최소화, 확장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2강은 "전자도서관과 VOD(Video on Demand)system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라이브텍 박경화 사장이 강연하였는데, 주문형 오디오라고 불리는 VOD 서비스는 사용자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활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VOD의 특징에 대해서는 1) 기존의 LAN 환경에 쉽게 적용 가능, 2) 소규모부터 대규모의 탄력적 구성 가능, 3) 고화질의 동영상 데이터 저장 가능, 4) 기존의 파일 서비스의 동화상 전송 문제의 비디오 서버의 대역폭 및 사용자 확장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VOD의 사용으로 폭넓은 사

용자 범위를 제공, 5) LAN 환경에 인터넷 기능을 추가, 동영상 및 음성 송수신 가능, 6) 여러 가지 어학 교육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기자재와의 연계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였다. VOD를 응용해서 비디오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멀티미디어 교육시스템, 원격강의, 멀티미디어 무인 안내 시스템, 비디오 메일 시스템, 비디오 편집 시스템, 비디오 방송,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등을 만들 수 있음을 덧붙였다. LAN 환경에서의 VOD 시스템은 레이드 디스크에 저장하고 매체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과 스트림 출력 제어 기능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동화상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인코딩해야 하며, 인코딩 장비가 비디오 서버에 장착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세 번째로 "Web을 이용한 참고봉사"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김휘출 사서의 강연이 있었다. 디지털정보원의 증가와 웹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등의 환경변화로 도서관도 변화하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형태도 변화되어 사서들의 업무형태도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사서들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정보교육, 디지털 참고봉사, 인터넷 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디지털 참고봉사의 예를 들면,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Web Form, Chatting,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의 디지털 참고봉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아직까지는 디지털 참고봉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를 사서들이 도서관의 기본업무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도서관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서는 정보축적기능, 정보중개기능, 정보교육기능을 언급했으며, 홈페이지의 4대 구성요소는 사

서의 지적능력, 사서의 대화능력, 사서의 인맥, 사서의 용모를 꼽았다. 바람직한 도서관 콘텐츠는 사서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의 가공,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가공 링크, 도서관 이용법 교육 제공 등을 들었으며, 바람직한 도서관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 입장의 전문용어 사용, 디지털참고봉사 제공, 담당사서의 e-mail, 전화번호, 도서관 주소가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커뮤니티는 이용자 사서, 이용자와 이용자간, 사서와 사서간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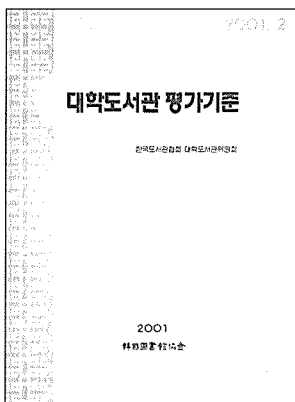
끝으로 “사서(직)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장 김영수의 강의가 있었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가 됨에 따라 대학도 변화였고, 대학이 변함에 따라 도서관도 변화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서두로 하였다. 도서관의 자료의 변화, 업무형태의 변화, 참고업무 등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지금 도서관은 기구개편, 구조조정, 아웃소싱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요구 속에 있는 사서들은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사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아 사서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을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더 이상 사서만이 도서관이란 벽 안에서 ‘지식의 보고’를 관리만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사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온라인 검색, CD-ROM 검색,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용교육자로서의 역할 등 그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안주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제 사서들은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 도서관과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의 도서관이 요구하는 사서가 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와 소속된 조직, 이사회에서 각광받는 사서가 되기 위해,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뼈를 깎는 각오로써 자신을 개발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 간



4×6배판/70쪽/정가 11,000원
 회원보급가 8,800원
 ISBN 89-7678-051-5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목차

- 현행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분석
- 새로운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 대학도서관 평가기준표

구입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